

한옥마을 특화 콘텐츠 발굴 '온 힘'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 대표자 신년간담회서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리플릿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키로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7개 문화시설 대표들과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시는 지난 10일 최명희문화관, 전주 소리문화관, 전주한벽문화관 등 7개 문화시설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문화시설 대표자 신년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동안 이곳 문화시설들이 추진한 사업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곳 문화시설들은 올해 △흔불 민민남독회 △맛, 맛, 락, 락 솔로맛 채야 노을자! △전주한옥마을 한글 문화축제 등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 75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는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추진사항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행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리플릿 제작·배포,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시와 7개 문화시설은 지난해 다양한 공연·체험행사 프로그램에 한옥마을을 방문한 500여명을 초청해 전주한옥마을을 문화시설과 원주민, 상인이 상생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어 올해도 주민의 호응이 높았던 이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행 성수기에 집중된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연중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와 풍성한 콘텐츠 제공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택시 고공농성 간담회
지난 11일 전주시 전주시청 광장의 택시 고공 농성장을 방문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청 회의실로 이동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철소 한달 만에 상승 절도 20대 구축

철소한지 한달 만에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상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모씨(24)를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군산 시내 상가 26곳과 차량 4대에서 시가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그는 주로 영업을 끝난 매장에 불래 침입해 범행했다. A모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한 뒤 지난 12월 13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모씨는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완주 양계장에 화재 발생

지난 10일 오후 7시46분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건물 1221㎡가 모두 타고 사육 중인 닭 4만4000여 마리가 죽어 소방서 추산 7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휴대폰 훔친 40대 검거

순남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A모씨(46)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경 전주시 완산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선반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올 중기 수출지원예산 6억원 편성

3년 전보다 20배 늘려 해외 마케팅 지원 나서기로

전주시가 3년 전보다 20배 늘린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을 활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6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총 20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 유망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예산이 지난 2016년 3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외국어 동영상(홈페이지)제작 △해외출장/바이어 개별 초청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참여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회수를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늘리고, 파견지역도 북중미(2월)와 동남아(6월), 일본(10월)으로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회수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및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업체도 작년보다 2배로 늘려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증액된 수출 예산을 활용해 △해외출장/바이어 개별 초청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등 신규 사업을 지원해 수출기업을 지속 육성한다. /송효철 기자

이와 함께, 시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수출과 자금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올해도 전주시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기업 활동에 힘써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기를 살려 작지만 세계에서도 통하는 독일형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해 총 3억원의 수출지원예산으로 총 150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참여기업들은 판로 및 수출시장 확대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송효철 기자

행정용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신설... 게시는 15일동안

전주시, 오늘부터 운영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행정용 저단형게시대 운영된다. 전주시청과 백제로변 진북터널 사거리 등 주요도로변 36개소에 설치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돼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시는 주요 행정기관에 행정용현수막 게시를 위한 홍보를 실시해왔으며, 공문으로 선착순 접수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게시기간은 15일간으로, 가로 5m와 세로 0.6~1.2m 규격의 1단 또는 2단 규격으로 게시할 수 있다.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은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적극



글로벌 자원봉사 '스타트'

시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글로벌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전국 대학생 21명과 봉사단장(박현주 위덕대 간호학과 교수), 인솔자 2명(전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4명이 오는 25일까지 2주간 2주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파퓰르 2년 학교에서 교육봉사와 노력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에 행정용 현수막을 게시할 공공기관 등은

전주시 건축과(063-281-5138)로 문의하면 게시기간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도내 겨울스포츠 동호인 은빛 설원 위에서 '격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스노보드 대회 개최

전북지역 스키·스노보드 동호인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열렸다.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주시 스키협회가 주관하는 '2019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동호인 선수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유산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 대회전과 스노보드 대회전 등 2개 종목,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워진다.

각 부문별 경기에 참여하는 동호인 선수들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나뉘어 초별리그 및 토너먼트로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스키·스노보드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동호인 저변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스키·스노보드가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대중화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여가문화 제공 등 생활 속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당신에게서 악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안찰기도 중 30대 여성 살해 목사 항소심서 징역 2년 피해자 어머니도 징역 1년 6월형... 선고 원심 유지

안찰기도 중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와 피해자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모씨(58)와 피해자의 어머니 B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모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14일 오후 9시경 전주시 농성동 한 기도원에서 딸 C모씨(당시 32)를 5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모씨가 "아프다"고 거부사를 표시했음에도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며 손과 발을 묶은 뒤 가슴과 배를 손바닥으로 계속 때렸으며, B모씨는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모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기도원에서 매일 30~40분씩 안찰기도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모씨는 다발성 녹골결절 등으로 인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안찰기도를 명목으로 5시간가량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내려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힘들다며 그만하자고 했음에도 기도를 강행했고 종교 활동과 치료행위로써의 한계를 일탈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생명을 앗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

설 맞이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관리

전주시, 오늘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 나서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산업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18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옥마을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 120곳과 휴게음식점 43곳, 제과점 2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8곳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유류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

단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표시·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영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상태 △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류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